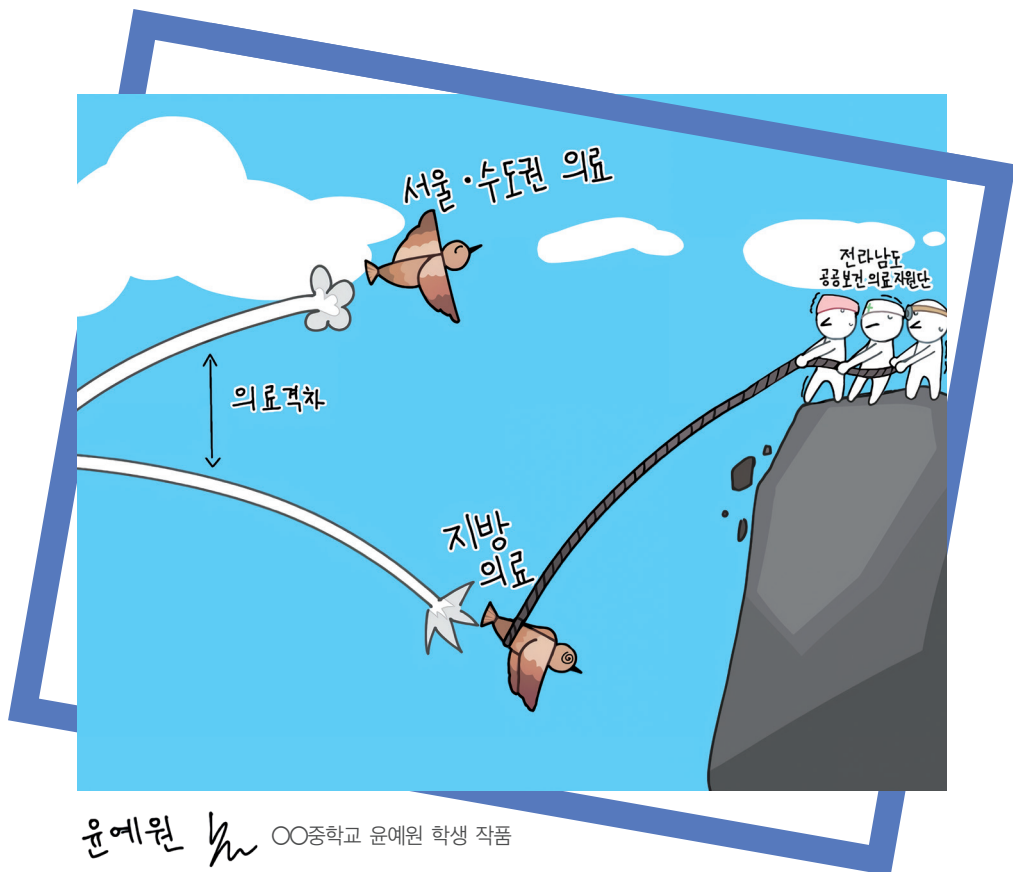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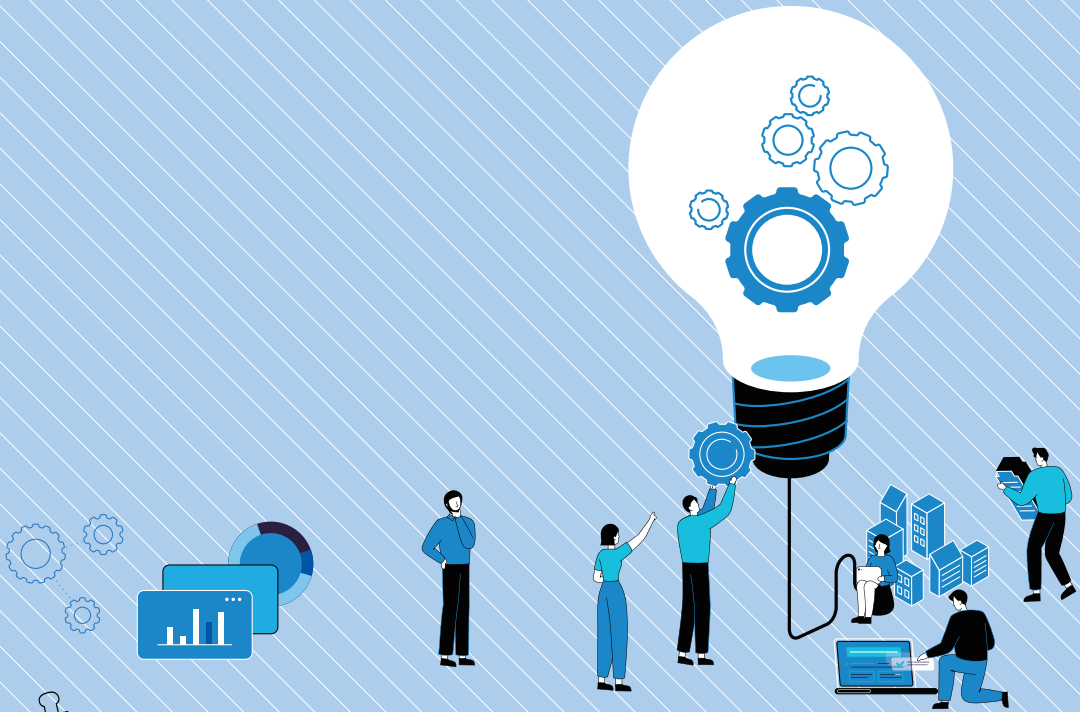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JEOLLA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전라남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소식지



만평 아이디어 및 수기 보내기 rosejm120@korea.kr

※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호 Vol. 01

발행처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jncare.go.kr>

전화 061-286-6063

주소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청 13층

CONTENTS

04

인사말

- + 박원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06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 지원단 소개
- + 지원단이 걸어온 길(2019-2021년)
- + 2022년도 추진사업(1-3월)

12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만나다

- + 전라남도 권역책임의료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15

공공보건의료 경험수기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창간을
알려드립니다!



박원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원주입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전남은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구성된 초고령사회 지역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의료기관에 갈 일도 많아지므로 적절한 의료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위축으로 좋은 의료인력과 시설이 유출되고 있으며 필수 보건의료의 기능 상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단은 도민분들이 전남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지역과 계층에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기술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지표를 감시하고 생산하여 정책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젊은 조직으로 도민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살면, 섬에 살면, 산속에 살면 이런저런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얼마 안 사는 곳에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다 지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살고, 장애가 생기고 말고의 문제인 필수보건의료는 커피전문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응급, 외상, 분만, 장애인, 어린이 의료와 같은 필수의료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품고 가느냐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자 품격일 것입니다. 굳이 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필수보건의료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필수보건의료의 공백은 그것의 필요성을 본인이 실감하기 전에는 대부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평소 건강하여 병치레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리 통증으로서 일주일 정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계단을 2~3개씩 힘차게 뛰어올랐지만, 이 기간에 계단은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등 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저런 걸 왜 만들어 놓았지라고 생각하던 환자용 난간대를 처음으로 잡고 계단을 올라보았습니다. 그냥 오를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진땀을 빼고 올랐었는데 난간에 의지하고 오르니 너무 편하고 이것을 설치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실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일주일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화장실, 계단, 건물 입구 등에 설치된 보조도구들의 도움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필수보건의료도 그런 난간처럼 더욱더 촘촘하게 챙겨서 많은 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촘촘한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국민분들도 공동체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서울과 수도권과 같이 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류의 다수 사람이 비주류 소수의 사람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기본 좋게 내고 뿌듯해하며, 그 기금은 엉뚱한 곳에서 새지 않고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이런 좋은 보험을 혜택을 충분히 받고 빠르게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곁의 파랑새인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을 죽이지 않고 더욱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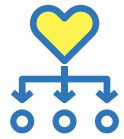
필수보건의료의 촘촘한 제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보건의료의 책임을 정부가 전부 공공의 영역으로 꺼안고 가는가, 아니면 민간 보건의료기관을 정교하게 컨트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등 고민하고 논의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라도 적절한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지원 즉 돈은 중요하며 냉정하게 말해 돈이 충분하면 생명을 구할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필수보건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도 모두 우리 주위의 평범한 생활인이며 모든 필수보건의료 활동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119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구급대원의 임금, 구급차와 헬기의 유지비, 병원의 수많은 의료진과 지원직들의 임금, 좋은 장비와 효과 좋은 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열정을 요구하거나, 성인 경지의 희생정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필수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과 열정으로는 분명히 금세 한계에 도달하고 필수보건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필수보건의료를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진화해 나가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필수보건의료 체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리더분들이 지방의 필수보건의료 활성화의 중요성을 공감하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본인과 가족에게 생기면 서울의 큰 대표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리더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올라가지 않고도 각 지역의 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그런 지역사회 의료인프라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격차 없는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 개



Jeolla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Introduction



설립목적

-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를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전남 도민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
- 전라남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 하도록 지원



Mission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해 전라남도민의 형평성 있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기관



Vision



지원단이 걸어온 길 2019 - 2021

Jeolla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History



공공의료기관 간담회

- 일 자 2019년 12월 24일
- 장 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캠퍼스
- 대 상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 실무자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교육

- 일 자 2019년 12월 24일
- 장 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캠퍼스
- 대 상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 실무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식 및 심포지엄

- 일 자 2019년 12월 10일
- 장 소 여수 베네치아 호텔
- 대 상 도·시군 공무원, 공공의료기관, 타 시도 지원단 등



제4차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의 참석

일 자 2019년 11월 21일

장 소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대 상 전국 공공보건의료재단 및 지원단 관계자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기 간 2020년 3월 13일 - 30일

내 용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환자 연계 및 특화사업 관련 제언



공공보건의료지표 생성연구

기 간 2020년 1월 - 12월

내 용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표를 선정하여
현재 동향 및 미래 방향에 대한 정보 파악
에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2020년 6월 24일

※ 연구보고서 발간

취약지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기 간 2020년 2월 - 12월

내 용 보건의료 취약지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에 대해 전라남도 도서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



※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센터, 2020년 10월 19일



※ 전남소방항공대, 2020년 10월 21일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2020년 11월 4일



※ 연구보고서 발간

공공보건의료사업 워크숍/공공의료인력 역량강화교육

기 간 2020년 11월 5일 - 6일

장 소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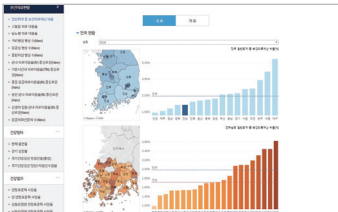
대 상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사업팀장 및 실무자



공공보건의료 홈페이지 추가 개발 및 유지관리

기 간 2020년 9월 - 12월

내 용 공공보건의료 주요지표 시각화(태블로 프로그램), 자료제공



공공의료 INSIGHT 공동발간 사업 참여

1호 국토 최서남단 섬 가거도의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 운영소개, 필수중증의료관련 지역 동향 분석

2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소개, 산모(분만, 모성), 어린이 관련 지역 동향 분석

3호 정신, 치매 관련 지역 동향 분석

4호 재활 관련 지역 동향 분석



「공공의료 INSIGHT」
'21년 봄호



「공공의료 INSIGHT」
'21년 여름호



「공공의료 INSIGHT」
'21년 가을호



「공공의료 INSIGHT」
'21년 겨울호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

내 용 산하 보건의로 지원 조직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협력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09월 02일

※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공공의로
사업실, 2021년 11월 23일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워크숍

일 자 2021년 12월 21일

장 소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대 상 시군 보건소,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그린북' 발간

기 간 2021년 1월 - 12월

내 용 2021년 전라남도 보건의로 기초 통계지표를 통한 정책과 사업 등의 활용



간호사 역외 유출 조사 연구

기 간 2021년 3월 - 12월

내 용 도내 공공의료기관 등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된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 포커스그룹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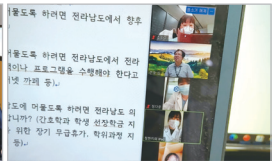
※ 목포대학교 FGI('21.04.09)



※ 청암대학교 FGI('21.04.30)



※ 세현대학교 FGI('21.05.11)



※ 목포대학교 FGI('21.04.09)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 홍보지원



※ 고속버스 랩핑 홍보



※ 소개 영상 제작



※ 리플렛 제작 배포



※ 달력 제작 배포

2022년도 추진사업 1 -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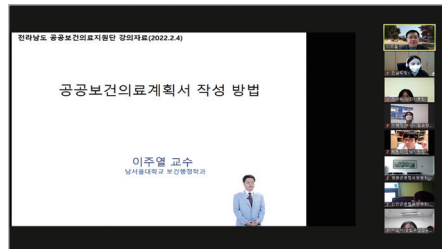
Jeolla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a Propulsion Project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실시

일 자 2022년 2월 4일

대 상 도내 공공의료기관 담당자(16개 기관)

내 용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과정의 이론 및 실습



지원단 내부인력 역량강화

기 간 2022년 1월 -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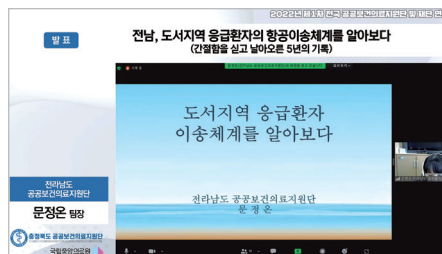
내 용 지원단 누리집(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 수정 및 관리 방법(대면 및 비대면)



제1차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참석

일 자 2022년 2월 18일(금)

내 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성과 공유



지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실시

일 자 2022년 3월 3일(목)

내 용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MOU 체결을 위한 논의



지역공공 보건의료기관을 만나다!

전라남도 권역책임의료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Off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자연속의 첨단의료 환자중심 세계중심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중심 암 특성화 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담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004년 설립된 암 특성화 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의 분원이며, 전라남도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이다. 2007년 전남지역 암센터 설립, 2010년 3월 국립대병원 최초의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 획득, 2011년 1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병원 뒤 만연산 자락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여 국내 유일의 환경친화병원이라는 타이틀도 지니고 있다. 2022년 미국 뉴스위크지의 '월드베스트 암 병원'으로 2년 연속선정되었다.

Newsweek 2년 연속 선정

'세계 최고 암병원'



Q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궁금합니다.

A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필수보건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권역책임 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총 50개소가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021년 2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사업 전담인력 배치 등을 거쳐 2022년 1월 원내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책임자는 진료처장, 사업 총괄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며 전담인력은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운영**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사업 수행**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권역책임의료기관(Regional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정신건강증진질환 등)을 수행해야 한다.

Q

2022년 수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화순전남대병원은 15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다른 권역의 누적된 사례와 평가를 토대로 향후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❶ 대장암 및 폐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❷ 전남 소방본부 및 화순경찰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정신 건강증진 관련 전문교육
- ❸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관리방안 및 지역 내 의료인력 역량강화
- ❹ 전남지역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기초조사

Q

하고 싶은 말?

A

권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필수보건의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유관기관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전남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공공보건의료 경험수기

전남 순천시 30대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던 일상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여전히 모두가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네요. 사실, 공공의료라는 것에 대해 저는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무료, 백신접종도 무료,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 등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번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가는 금액들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저 어디로 새어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았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 명세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파산자의 60% 이상이 병원치료비 때문이라고도 하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창기 코로나19 상황으로 병원의 업무가 마비되고, 감염 우려 때문에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갑작스러운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부족도 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최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타지에 있고,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다 보니 아무래도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정된 병원에서 부모님께 매일 아침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주시고, 시에서도 필요한 생필품을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저도 이러한 과정들이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책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암울하고 아픈 이 시기를 겪으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이 말에 아마 한 사람도 반박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성장통과 새로운 기회로 발판삼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빈 곳이 메꾸어지고, 건강과 질병치료를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그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단 소개영상

바로가기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JEOLLANAM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